

## Part 1. 덴마크 교환학생 준비하기 : 비자

### 포스팅을 시작하며.

덴마크란 미지의 나라에서 홀로 떨어져 한 학기를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보다 더더욱 힘든 것은 교환학생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 많은 서류와 눈치없이 다가오는 시험기간, 내 주변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 턱없이 부족한 정보. 혹여 본인이 덴마크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내가 1학기동안 몸담은 Aalborg University 코펜하겐 캠퍼스의 모습 출처 : LED-skærme

### 출국 전, 준비하면 좋을 것들 중 단언 1순위, 비자.

자신의 모교와 파견학교 양측에서 교환을 허가받은 그 이후의 상황이다. 학점 관리는 모교선발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면 덴마크는 영어소통능력(TOEFL, IELTS)을 관리해야 한다. 비록 공식/비공식적으로 덴마크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원어민만큼 영어를 아주 잘 한다.

#### 1. 비자 : 난이도 ★★★★★ 중요도 ★★★★★☆ 비용 총 90만원

덴마크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면담을 거쳐 최종 발급된다. 온라인 접수는 ST1이라는 서류를 받기 위함이고, ST1이 없으면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

> 온라인 접수 즉, ST1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 1) 덴마크비자국 에서 Case Order ID를 제작한다. (Case Type : Higher Education, 비용 : 약 37만원)
- 2) 파견학교에서 보낸 입학허가서에 ST1 로그인 레퍼런스 번호와 비밀번호, 웹사이트 주소가 담겨있을거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Part 2는 이미 학교에서 채워놓은게 보인다.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앞서 제작한 Case Order ID를 포함해 Part 1만 채우자.
- 3)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ST1이 발급된다. ST1을 인쇄해 Sworn Declaration에 서명한다. 스캔하면 끝.

> 오프라인 면담은 노르웨이 비자센터에서 진행한다. 면담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연락처: 070-4044-0599. 업무 시간: 평일 9~13시, 14~16시. 적혀있는 연락처로 업무시간 내에 면담을 예약한다. 평균 2달 정도 후에 발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단암빌딩입구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 준비할 서류도 엄청엄청 많고 (짜증나고) 불합리하며 무엇보다 비싸다. 준비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파견학교의 Letter of Acceptance : 입학허가서 **1부**
  - 앞서 발급된 Case Order ID 결제영수증 **1부** + ST1 Sworn Declaration 서명본 **1부**
  - 여권 실물 및 여권의 모든 24 pg을 스캔한 인쇄본 **1부**
  - 여권 사진 **2장** + 대행비 현금 **48만700원** (\*TIP. 불합리한 이 금액을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다.)
  - 영문 잔고 증명서 **1부** (\*주의 : **1달 x 100만원** 가량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증명서 발급 당일은 계좌가 동결된다.)
- 3) 면담이 끝나면 노르웨이 비자센터가 가져갔던 여권을 1주일 뒤 돌려받아야 한다. 방문도 우편수령도 된다.  
4) 비자 발급까지 일반인은 평균 3개월, 학생은 빠르면 평균 1개월이 소요된다. 이메일을 틈틈이 확인하자.

\*TIP. 노르웨이 비자센터에서 대행비를 받는 행위가 대한민국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깨달았다. 실제로 노르웨이 비자센터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할 2가지 과정 중 1가지는 기구가 없어 여차피 덴마크에서 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굳이 노르웨이 비자센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입국은 다른 유럽 여행객처럼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한 후 비자는 기숙사/장기숙소에 입주하기 전까지 준비하자. 다음 스텝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No Problem.

## 덴마크엔 입국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 CPR Card와 Pink Card

노르웨이 비자센터에서 이메일이 도착한다. 거주 허가와 시간제 노동을 허락하는 서류이다. 일명 Residence and Work Permit 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덴마크는 교환학생의 알바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있듯 덴마크에선 **CPR Card**와 **Pink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CPR Card** : Civil Registration Number, 즉 덴마크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노란색 카드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다. 우측 상단에는 본인에게 배정된 병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으며, 덴마크어 어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은행계좌를 개설해 알바를 한다면서 세금 환급과 휴가비 지급도 가능하다.

꼭 한 곳에서 3달 이상 거주해야만 발급 가능하다. 코펜하겐 거주자는 International House에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고, 그 외 지역은 Kommune에서 신청한다. 우편 배송은 1달 가량 소요되고 다음을 준비하자.

- 여권 실물, 비자 서류, 집 계약서 (**주인과 작성**), International House에 구비된 Entry form-Arrivals form countries 작성본.



Forum역에서 10분만 걸으면 나오는 International House 바깥 전경이다. 출처 : Wikipedia

**Pink Card** : 위의 CRP Card보다 더 신분증같은 개념이다. 지문, 본인의 사진 등 생체정보가 담겨있으며 이 카드가 없으면 쉐겐지역이 아닌 제 3국 방문 시 재입국 제한을 당할 "수도" 있다. 기타 지역으로 많이 여행다니고픈 학생은 혹시 모르니 챙겨가자. 거부당했다는 사례는 아직 못들어봤다. 코펜하겐 거주자는 앞서 발급받은 Residence and Work Permit과 여권을 지참해 Island Brygge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덴마크이민국(Citizen Centre)을 방문한다. 번호표를 뽑은 후 지문등록, 사진 촬영, 서명을 하면 절차는 끝이다. Pink Card는 CRP Card와는 달리 우편으로 발송되기까지 무려 3달이 소요됐다. Pink Card가 없는 동안에는 항상 여권을 지참하고 다니길 바란다.



덴마크 이민국은 1층에 위치해있다. 유리문 앞에 72C라고 적혀있다. 출처 : Wikimedia Commons

## 드디어 끝?

제목을 보니 끝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죄여왔던 숨통이 탁 트였을 것이다. 각각의 서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언제 어떤걸 챙겨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큰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CPR과 Pink Card 발급도 물론 중요하고 까다롭지만 오랜시간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준비할 것들이 많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 걸 가볍게 [Part 2. 숙소와 미리 챙겨갈 짐] 에 대한 내용을 올리겠다.

URL 링크 : <https://blog.naver.com/lawliet0823/221332768238>